

우리 주님의 승리 (2)

신학박사 조 덕운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갈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6:38-39]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1. 겻세마네 첫째 도전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에 이루신 가장 큰 승리는 아마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정,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당하실 부당한 재판, 그리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 당하시기 위해 체포 되기 얼마 전 겻세마네 동산 안에서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겻세마네의 승리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듯이 그분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승리였습니다. 이 동산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을 괴롭힌 것은 부당하게 재판 당할 것에 대한 모멸감도 아니었고 십자가 처형의 신체적 고통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 항거하여 벌인 반란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처형의 경험 그 자체를 주님이 두려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마지막 하루 동안에 특별히 그분에게 어려웠던 점들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셨는지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37]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첫번째 어려움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배반당하고 그들의 손에 부당하게 재판 받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주로서, 메시야로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치 그분이 일반 범 죄인인 것처럼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정죄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려 700 년 전에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대언자들이 정확하게 예언한 바로 그분, 갈릴리의 겸손한 전도자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예언한 낮은 종 메시야인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를 거부하고 정죄한 것은 유대인들의 큰 오류였습니다.

[요한 1 서 2:2]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2. 둘째 도전

주님께서 당면하신 두번째 힘든 점은, 자신의 어깨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시고 사흘동안 그를 죽음에 놓아두실 것인데, 이것은 마치 주님이 모든 인간의 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 죄들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힘들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엄청난 불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온전히 죄 없는 분이셨는데도 십자가 죽음에 처형당하도록 판결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 모든 죄인의 죄들에 대한 속죄물이 되도록 스스로 자원하신 우리 주님,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이렇게 불공정한 벌을 받으실 전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28]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분의 희생의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희생은 우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효과와 혜택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에 대한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혜택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의 회개가 반드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위에서 큰 값을 지불하셔서 가능하게 된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하심과 그분의 훌륭한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커다란 혜택을 얻는데 우리의 회개는 매우 작은 값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3. 사탄의 착각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미션을 이제 사탄의 방해와 대적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간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록 구약 성서의 예언의 구절들에 충분히 묘사가 되어 있지만 사탄에게 있어서 그 계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리라고 생각 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반란 집단을 조직하고 반란을 획책하여 자신의 초능력을 이용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사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예수님의 왕국 수립 계획을 훼방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53:7]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들, 즉 이스라엘 리더 그룹과 로마 총독에 의한 혹독한 체벌을 묵묵히 당하고 재판을 견디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양처럼 순순히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행동들을 사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비록 과거에 하나님의 천사장의 하나 이었지만 인간 구원 계획의 이 마지막 부분은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비밀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은 사탄에게 불가사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탄이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단계를 효과적으로 방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로마 총독의 분노와 유대 나라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집단과 가롯 유다가 협력하도록,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사탄은 그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4. 구원 계획의 놀라운 비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여서까지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댓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경험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분에게 내려진 심판이 얼마나 불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미션에 얼마나 충실하시고 헌신적이었는지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유사한 경험을 당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을 기꺼이 당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유사하게 불의한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고, 신체적인 고문과 체벌을 당하고, 건강이나 생명까지도 내어버릴 용의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어려운 경험은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으로 필요했던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지 약한, 힘겹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데, 그런 엄청난 미션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단계인 예루살렘 경험 부분은 나에게 전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내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 역시 여러분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당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시간에 하늘 왕국에 매우 훌륭한 미래를 준비하셨음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즉,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사탄의 편에 서지 말고, 중간 지역에 서지도 말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